



GIST(광주과학기술원) 보도자료

<http://www.gist.ac.kr>
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.	
보도자료 담당	홍보팀 김효정 팀장	062-715-2061 / 010-3644-0356
	홍보팀 이나영 선임행정원	062-715-2062 / 010-2008-2809
자료 문의	기술사업화센터 임재학 담당	062-715-3074

GIST, 이노비즈 협회와 지역기업 지원 위한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문단 출범

기술 국산화 협력의 장 열어

- GIST의 우수한 연구기술력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

- GIST(지스트, 총장 김기선) 과학기술응용연구단(단장 박우진)이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(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, 광주전남지회장 나기수)를 초청하여 기술자문단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다.
 - 본 행사는 GIST와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가 공동 주관하고, 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후원으로 8월 30일(금) 12시 GIST 행정동 1층에서
 - GIST 김기선 총장과 송종인 부총장, 김준하 기획처장, 김상돈 중앙연구기기센터장, 박지웅 연구처장, 박성규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GIST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문단 7개 분과 분과장 및 참여교수,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나기수 지회장, 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문환 청장,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원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.
- GIST 김기선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나기수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장과 김문환 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, 박지웅 GIST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문단장(GIST 연구처장)의 진행으로 GIST의 R&D 현황 소개와 보유기술 책자 배포 및 설명이 진행되었다.

- GIST의 우수한 연구기술력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역기업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.
- GIST 김기선 총장은 “최근 일본발 수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”이라면서 “오늘 이 자리는 GIST의 우수한 연구력과 전문가 자문 서비스로 R&D 역량 강화 등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, GIST가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”고 말했다.
-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의 나기수 회장은 “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드리며, GIST의 우수한 과학기술력과 연구 자문 등 실질적 도움을 통해 미래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면 머지 않아 좋은 결과와 발전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- 광주·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문환 청장은 “오늘 이 자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GIST와 이노비즈협회가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으며, 부품 소재 개발의 국산화 및 자립화를 위한 핵심 기업 발굴 및 지역협력 강화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- 한편 GIST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신산업과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 애로기술 개발지원과 최적의 기술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7개 분과의 기술자문(첨단소재분과, 물성·화학분과, 전기·컴퓨터분과, 에너지·환경분과, 기계부품분과, 융복합분과, 바이오소재분과)과 경영지원(기술사업화센터, 기술지원센터), 장비공유(중앙연구기기센터) 등 GIST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문단 110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하였다.
- 주요지원 서비스는 ▲기술자문: 연구인력, 교원 및 전문가 매칭을 통해 기술 진단 및 지도, 연구개발 지원 ▲장비공유: 연구시설 및 장비, 테스트 플랫폼 개방 등 연구 인프라 활용 지원 ▲경영지원: 특허 지식재산 활용 전략 및 관

련학과 인턴십 연계 연구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.

(기술자문 신청: GIST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문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,
<http://smbrnd.gist.ac.kr>)

- 향후 GIST는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문단을 중심으로 핵심품목 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국산 원천기술 개발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. <끝>